

## 『개역개정』에서 ἔθνος의 번역 -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

심우진\*

### 1. 들어가는 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다. 갈라디아서 2:8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에 따르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지만,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로마서 15:1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자기 이해는 분명했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미지가 확고했다. 독일어권에서는 바울을 *Apostel der Heiden*이라고 지칭했고, 영어권에서는 *Apostle of Gentile*이라고 지칭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최근에 발행되는 우리말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독일어의 *Heide*, 그리고 영어의 *Gentile*에 해당하며 『개역개정』에서 이방인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 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부교수. [predigt@naver.com](mailto:predigt@naver.com).

단어는 ἔθνος이다. 이 글에서는 『개역개정』에서 등장하는 ἔθνος의 번역을 점검하고, 이것을 최근에 출시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과 비교하여, 새롭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개역개정』을 위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짧은 지면이지만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바울서신에서 등장하는 ἔθνος의 번역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한다.

## 2. 이방인으로 번역된 ἔθνος

바울서신에서 등장하는 ἔθνος는 주로 이방인으로 번역되었다.

(롬 3: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지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갈 2:14-15)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1)

(고전 1: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후 11: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2)

- 
- 1) 갈 2:14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유대인으로 규정하며 이방인과 구별된 것으로 전제한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Ἰουδαϊκῶς를 ‘유대인답게’라고 번역했고, 이와 구별된 단어인 ἔθνικῶς는 ‘이방인들’이라고 번역했다. 한편 『새번역』은 이 구절의 ἔθνικῶς를 ‘이방 사람처럼’이라고 번역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자신의 위선적인 주장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유대인의 위선에 불과하며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점을 밝히기 위해 이 구절에서 ἔθνικῶς를 Ἰουδαϊκῶς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2)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의 목록을 제시한 바가 있다. 고후 11:26에 따르면 “동족의 위험(κινδύνους ἐκ γένους)과 이방인의 위험(κινδύνους ἐξ ἔθνων)”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γένους는 좁게는 ‘가족’, 넓게는 ‘나라’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동족’, 곧 같은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표현인 ἔθνος는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구별되는 이방인의 의미로서 ἔθνος를 사용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고난당했음을

이외에도 바울서신 여러 곳에서 바울은 ἔθνος를 유대인과 구별된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방인으로 번역하였다. 유대인과 구별된 개념,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써 이방인(異邦人, Heide, Gentile)은 매우 적절해 보이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방인이란 단어는 근본적으로 상반된 모순을 안고 있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상반된 모순이라 함은 ἔθνος의 다른 번역을 통해서 드러난다.

### 3. 민족으로 번역된 ἔθνος

바울서신에서 등장하는 ἔθνος는 이방인이란 단어로만 번역된 것은 아니다. 그 용례를 갈라디아서 3:8에서 볼 수 있다.

『개역개정』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새번역』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8의 경우, 『개역개정』은 두 번의 ἔθνος를 ‘이방’과 ‘이방인’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같은 구절의 『새번역』을 보면 독특한 현상이 주목을 끈다. 여기서는 두 번의 ἔθνος가 ‘이방 사람’과 ‘민족’으로 번역된 것이다. 같은 단어인 ἔθνος를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왜 다른 우리말 단어로 번역했을까?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같은 시기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작업하였으므로 같은 단어의 다른 번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곳에서 번역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 3:8에서 등장하는 두 번의 ἔθνος 중에서 두 번째 것은 구약성경의 인용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개역개정』 창 12:3)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 제기가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구약성경을 통

---

밝히고 있다.

해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정된 것인가?) 바울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정되어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신들만 구원받겠다고 생각했었다. 한편 사도를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통한 구원도 어디까지나 유대인에 국한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창세기 12:3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구원 계획을 선포하실 때 이미 이방인도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강조한다. 창세기 12:3에 따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되어 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에 기초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의 수혜자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다. 이 구절의 ‘모든 족속’의 히브리어 원어는 ‘콜 미슈파하(קֹל מִשְׁפָּחָא כָּל)’이다. ‘미슈파하(קֹל מִשְׁפָּחָ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8에서 πάντα τὰ ἔθνη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칠십인역의 φυλή와도 다른 표현이다.<sup>4)</sup> ‘미슈파하(קֹל מִשְׁפָּחָא)’는 아모스 3:2에서처럼 폭넓은 의미로 모든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칠십인역에서는 φυλή로 번역되었다.<sup>5)</sup> 따라서 창세기 12:3의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수혜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모두를 함축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아모스 3:2에서처럼 ‘미슈파하(קֹל מִשְׁפָּחָא)’와 φυλή가 구약시대에 이미 폭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슈파하(קֹל מִשְׁפָּחָא)’와 φυλή가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울이 ‘콜 미슈파하(קֹל מִשְׁפָּחָא כָּל)’와 πάσαι αἱ φυλαί를 πάντα τὰ ἔθνη라고 표현한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구원 계획에서 언급된 복의 수혜자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것이었다는 바울의 주장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은 롬 9-11장이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다. 단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다. 롬 9-11장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서중석, 『바울서신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77-196.

4) 칠십인역은 창 12:3의 ‘모든 민족’을 πάσαι αἱ φυλαί로 표현했다.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edidit A. Rahlfs (Stuttgart: 1935, 1982).

5) 이러한 용법은 신약성경에서도 이어진다. 빌 3:5에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φυλή) 출신이라고 언급했고, 행 13:21에서는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φυλή) 출신이었다고 언급된다. 계 7장에는 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모두 144,000명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단락에서 지파는 φυλή가 사용되었다.

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이었던 것이다.

성경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과 ‘민족’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8의 ἔθνος를 민족이라고 번역한 『새번역』은 잘못된 번역인가? 『개역개정』 역시 경우에 따라서 ἔθνος를 민족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롬 4:17-18)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17-18에서 등장하는 두 번의 ἔθνος를 『개역개정』은 모두 민족이라고 번역하였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ἔθνος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17절과 18절에서 공히 πολλῶν ἐθνῶν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개역개정』은 물론 『새번역』 역시 두 번의 πολλῶν ἐθνῶν을 ‘많은 민족’이라고 번역하였다. 결국 『개역개정』은 ἔθνος를 이방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민족으로 번역하기도 한 것이다.

#### 4.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된 용례들

『개역개정』은 바울서신에서 ἔθνος가 등장하는 총 54회의 용례 가운데,<sup>6)</sup> 45회는 ‘이방인’으로 번역하였고, 3회는 ‘민족’으로 번역하였으며, 나머지 6회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였다.<sup>7)</sup> 이 중에서 ἔθνος를 ‘민족’으로 번역하고자 한 기준은 알 수 없다. 구약 인용의 경우 그랬다고 한다면, ‘민족’으로 번역한 로마서 4:17-18도 구약 인용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 번역한 갈라디아서 3:8도 구약 인용이다.

ἔθνος의 번역 기준을 더욱 알 수 없도록 하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롬 10: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6) 로마서 29회, 고린도전서 3회, 고린도후서 1회, 갈라디아서 10회, 에베소서 5회, 골로새서 1회, 데살로니가전서 2회, 디모데전서 2회, 디모데후서 1회.

7) 『새번역』은 46회는 ‘이방 사람’, 4회는 ‘민족’, 나머지 4회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로마서 10:19의 경우, 두 번의 ἔθνος는 모두 ‘백성’으로 번역되었다. 바울 서신에서 ἔθνος가 백성으로 번역된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한데, 이 구절이 속해 있는 단락의 문맥을 고려할 때 ‘백성’으로의 번역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서 10:19-21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λαός)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었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21의 λαός를 『개역개정』은 ‘백성’으로 번역했다. 이것이 소급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21절에서 화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형식으로 발화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며, λαός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므로 ‘백성’이라고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21절이 19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단어인 ‘백성’으로 용어를 통일한 것 같다.<sup>8)</sup> 19절 역시 화자는 하나님이다. 19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내용적으로도 이방인 또는 민족이란 단어가 어색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 아닌 자로써’라고 말씀하시거나, ‘내가 민족 아닌 자로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말에서 매우 어색하다. 하나님은 절대적 왕(王)이시므로 이스라엘은 물론 그 어떤 민족도 백성으로 호칭하는 것이 우리말에서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고 해도 ἔθνος와 λαός, 다른 두 개의 단어를 같은 우리말 단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남는다.<sup>9)</sup>

8) 이것은 『새번역』도 마찬가지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 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새번역』 롬 10:19-21) 『새번역』 역시 19절에서 등장하는 ἔθνος를 ‘백성’으로, 그리고 21절에서 등장하는 λαός를 ‘백성’으로 번역하였다.

9) ἔθνος와 λαός는 의미가 다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서 다르게 번역되었다. 신약성경에서 142회 등장하는 λαός는 대부분 ‘백성’, 또는 ‘무리’로 번역되었다. 보다 큰 집합체로서 다른 집합체와 혈통, 관습 면에서 구별되는 의미인 ἔθνος와는 규모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 따라서 ἔθνος와 λαός를 한 단락 안에서 같은 우리말 단어로 번역한 것은 매우

바울서신 중에서 ἔθνος의 우리말 번역이 가장 독특하게 이루어진 곳들은 다음과 같다.

(롬 15:9-12)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딤후 3: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욕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로마서 15:9-12의 경우, 『개역개정』은 6번 등장하는 ἔθνος의 첫 번째만 ‘이방인’으로 번역하였고, 나머지 5번은 ‘열방’으로 번역하였다. 디모데전서 3:16의 경우는 ‘만국’이라고 번역하였다. 열방(列邦)은 여러 나라라는 뜻이고, 만국(萬國)은 세계의 모든 나라라는 뜻인데, 열방 또는 만국이란 표현은 옛스럽고 멋있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현재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무엇보다도 ἔθνος를 이 구절들에서만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그리스어를 모르는 독자가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5. ἔθνος의 번역 기준

*Handkonkordanz zum griechischen Neuen Testament*(이하 HGNT)<sup>10)</sup>는 신약

---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TDNT에 따르면, 구약성경에서 λαός와 ἔθνος의 용법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λαός는 거룩한 백성을 지칭하며 히브리어 단어  $\text{עַם}$ 의 그리스어 번역이다. ἔθνος는 주로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이방인을 지칭하며 히브리어 단어  $\text{גּוֹי}$  또는  $\text{עַמְּוָה}$ 의 그리스어 번역이다. 즉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λαός로, 그리고 이방인은 ἔθνος로 지칭했다는 것이다.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4), 364-369.

10) 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 und Rechenzentrum der Universität Münster, ed., *Handkonkordanz zum griechischen Neuen Testament*, von Nestle-Aland, 27. Auflage, und zum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141-143.

성경에서 등장하는 ἔθνος의 용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단수로 사용될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유대 민족을 지칭하는 경우(*populus Judaeorum*)<sup>11)</sup>와 둘째, 민족 전체를 통칭하는 경우(*ἔθνος in universum*)<sup>12)</sup>가 있다. 복수로 사용될 경우는 이방인 또는 이방인 기독교인(*sive gentiles sive christiani e gentibus*)을 지칭한다. ἔθνος는 신약성경에서 162회 등장하는데, 대부분 복수로 사용되어 이방인 또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HGNT의 분류법은 ἔθνος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sup>13)</sup>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포착하고 있다. ἔθνος가 유대 민족을 지칭할 수도 있고, 민족 전체를 통칭할 수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착되는 의미를 하나씩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ἔθνος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스펙트럼은 이보다 더 폭넓고 깊어 보아야 하지만,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의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위와 같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로의 분류법은 사실상 현대어 성경 대부분에서 ἔθνος의 번역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법은 본 소론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 근본적으로 상반된 모순을 안고 있다. 여기서 모순이라 함은 ἔθνος가 유대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ἔθνος는 때로는 유대인과 구별되는 의미로서 이방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이나 민족으로 번역되어 유대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때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가진 ἔθνος를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6.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ἔθνος 번역

그런데 최근 출시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ἔθνος를 독특한 방식으로 번역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절들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1) 눅 7:5; 요 11:48 등

12) 마 24:7; 행 2:5 등

13) 가장 독특한 ἔθνος의 사용 방식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ἔθνος가 다른 단어들과 나란히 나열되어, 특히 네 개의 단어가 나열되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φυλή, γλώσσα, λαός, ἔθνος (계 5:9), ἔθνος, φυλή, λαός, γλώσσα (계 7:9), φυλή, λαός, γλώσσα, ἔθνος (계 13:7), ἔθνος, φυλή, γλώσσα, λαός (계 14:6) 등



(롬 3:29)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유대아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갈 2:14-15)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유대아 사람이면서도 다른 민족 사람처럼 살고 유대아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유대아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아 사람들이지 다른 민족 출신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고전 1:23)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님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고후 11:26)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한테서 오는 위험, 다른 민족들한테서 오는 위험, 도시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겪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갈 3:8) 성경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믿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네 덕택에 복받을 것이다.”

(롬 4:17-18)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롬 10:19)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말입니까?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질투하게 만들 것이다.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을 가지고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롬 15:9-12)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주님께 찬양드리겠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도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다른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다시 이런 곳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모든 다른 민족들아.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리라. 주님을,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다시 이사야도 말합니다. “돌아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실 분이. 그분께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둘 것이다.”

(딤펴전 3:16) 다들 고백하다시피 경건의 비밀은 대단한 것이네.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네.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네. 천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네.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셨네. 세상이 그분을 믿었네. 그분은 영광에 둘러싸여 들려 올라가셨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ἔθνος 번역 방식은 독특하면서 기발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예, 롬 10:19의 첫 번째 ἔθνος ‘백성’), 대부분의 ἔθνος를 ‘민족’이란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물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역시 근본적으로 상반된 모순을 피한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경우는 ‘다른 민족들’로 번역하였고, 어떤 경우는 ‘민족들’로 번역하였다. 여기서 ‘다른 민족들’이란 이방인(異邦人)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역의 폭을 ‘민족들’과 ‘다른 민족들’로 제한함으로써 원어가 동일한 단어인 ἔθνος가 사용되었음을 보다 더 충실하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방인이란 표현은 민족이란 단어와 다름이 뚜렷하게 부각되는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ἔθνος의 번역 기준에서 이방인이란 표현을 제외함으로써 의미 있는 진일보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거의 같은 우리말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형식 일치 번역과 내용 동등성 번역의 관점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 7.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ἔθνος의 우리말 번역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기존대로 ‘이방인’으로 번역한다. 이방인이란 표현은 ‘이방인의 사도’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서 장점이 있다. 둘째,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방식대로 ‘민족들’, ‘다른 민족들’로 번역한다. 이 방식은 이방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원어가 동일한 단어인

14) 형식 일치 번역(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on)과 내용 동등성 번역(dynamic equivalence translation)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민영진, “표준 새번역 번역지침과 특징”, 『기독교사상』 37:2 (1993), 46; 나채운, “표준 새번역에 대한 바른 이해 (1)”, 『기독교사상』 37:10 (1993), 110-114; 박덕창, “표준 새번역의 ‘내용의 동등성’”, 『기독교사상』 38:11 (1994), 176-188; 김재성, “공관서 병행 본문 번역에서 형식 일치와 내용 동등성의 조화 — ‘표준새번역’과 ‘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4 (2009), 72-92.

ἔθνος가 사용되었음을 보다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셋째, ‘다른 민족들’ 대신에 ‘여러 민족들’이란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예를 든 구절들에서 ‘다른 민족들’ 대신에 ‘여러 민족들’을 대입하여 읽어보아도 거의 동일한 의미가 전달된다. 이 방식은, ‘이방인’ 또는 ‘다른 민족들’이라는 표현에는 들어 있지만 원어에는 없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방식은 기존에 있는 바울신학의 패러다임을 일부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본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두 구절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갈라디아서 2:8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여러 민족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로 번역할 수 있고, 로마서 15:16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여러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러 민족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인 ‘유대인 대 이방인’의 구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인 ‘유대인 대 여러 민족들’로 전환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본질적인 내용이 변했다기보다 그리스어 원어에 더욱 충실한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표현대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때에, 바울은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를 통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여러 민족들로 확대될 수 있느냐가 핵심 논점이었다.<sup>15)</sup>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ἔθνος를 번역할 때 있는 그대로의 형태대로 단수인가, 아니면 복수인가를 주목하기만 하면 된다. 내용적으로 유대인을 지칭하는지, 이방인을 지칭하는지, 민족 전체를 통칭하는지 신학적인 분석은 다음 문제다.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리스어 원어를 번역할 때는 그 단어의 역사적, 언어적 배경은 물론 신학적 배경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번역문에 신학적인 선입견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5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7일)

15) 기존의 패러다임인 ‘유대인 대 이방인’의 구도는 엄밀하게 볼 때 유대인이 예수를 통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야 가능하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일례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바울은 기금을 모아 전달하려고 했고, 그렇게 한 이유를 자신들이 그들, 곧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복음의 빛을 쬐기 때문이라고 했다(롬 15:2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바울에게 주어진 구도는 ‘유대인 대 여러 민족들’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여기서 여러 민족들이라 함은 유대인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핵심 관건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